

현대소설 속의 ‘불’의 상상력

— 몽상적 상상력 · 영원한 허무로의 의지 —

정 영 곤*

目 次

- | | |
|----------------|--------------|
| I. 서 論 | 1. 몽상적 상상력-불 |
| 1. 연구 방법 | 2. 소설 속의 불 |
| 2. 바슐라르 미학의 반성 | III. 결 論 |
| II. 본 論 | 참고문헌 |

I. 서 論

1. 연구방법

바슐라르 미학은 몽상적 관념론(idéalisme fantasmagorique)이다. 시, 소설 갈래에 여전히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바슐라르의 4원소 이론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바슐라르의 미학이 갖는 문제점을 먼저 기술한다. 다음에 문제소, 문제인자, 또는 기법들의 화성악으로서 문제가 존재하고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문제론적 입장에서 소설속에 나타난 ‘불’을 그 작품속의 다른 문제인자와 함께 다룸으로써 작품을 해석해보는 기술 순서를 선택했다.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2. 바슐라르 미학의 반성

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아서는 안된다.(Il ne faut pas voir la réalité telle que je suis., 폴 엘뤼아르)를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첫머리에 인용하고 있다.¹⁾ 인간이 갖고 있는 태고로부터의 상상력을 몇가지 문학 작품속에서 뽑아내고 있는, 이른바 바슐라르 미학은 작품을 작가의 전기적 요소로부터 결정짓는 것으로 보는 결정론²⁾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데서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진다. 또 바슐라르가 말하는 상상력 자체는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슐라르의 미학이 갖는 정당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 또한 만만한 것은 아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문체론적 입장에서 볼 때 요소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독립된 우주이다. 그것은 또한 여러개의 이질적인 층으로 이루어진 형상(Gebilde)이다. 각개의 층은 저나름대로의 존재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전체로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고 있는 천체이다. 시에 있어서는 운율, 이미지, 어조 따위가 따로 작용하는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설정되어 있는 작품속의 모든 요소가 지은이가 마련한 기법들이고 문학 작품은 기법들의 화성악이다. 그럼에도 바슐라르가 문학에 있어서의 인류의 보편적 상상력을 인류의 체험에 근거하여 불(『불의 정신분석』, 『초의 불꽃』)³⁾, 물질(『대지와 의지의 몽상』)⁴⁾, 상자와 장롱(『공간의 시학』)과 같은 몇가지 물질에 한정한다는 것은 그 발상이 소피스트시대에 만물을 이루는 요소가 물, 불, 흙, 공기

1) 민희식역, G.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 외」, 『세계사상전집』10(삼성출판사, 1979), 13쪽.

2) 광광수 옮김, G.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민음사, 1990), 11~12쪽.

3) 민희식역, G. 바슐라르, 「불의 정신 분석」·「초의 불꽃」 『세계사상전집』10(삼성출판사, 1979)

4) 민희식역, G. 바슐라르, 「대지와 몽상의 시학」 『세계 사상 전집』10(삼성출판사, 1979)

따위 가운데 하나라거나 이들 전부라고 했던 학설들에서 탈을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슐라르가, 예를 들어 불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설 연구에서도 그것이 타당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⁵⁾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슐라르 미학은 요소주의의 위험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바슐라르가 말하는 상상력의 여러 요소들을 이른바 문체소 style-marker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즉, 문체소가 문체인자의 최하위부인 인자⁶⁾로서 어떤 특정한 문학 작품에서 미적 효과를 발휘하는 언어 요소⁷⁾라고 할 때 상상력으로서의 어떤 요소-보기로써 '불'이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문체소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품속에 나타나는 '불'은 작품 전체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에 있어서나 단편 소설에 있어서처럼 짙은 분량의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 전체를 이끌어어나가는 문체소 내지 문체인자라고 말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체론에서 말하는 문체는 작품속에 등장하는 기법과 기법의 총체가 바로 문체라고 하는 구조물이라는 관점⁸⁾ 위에 서 있고 아무리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해도 단순히 길이가 짧다고 해서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점⁹⁾에서 어떤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작품 전체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바슐라르 미학은 주관적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상주의의 비평에 빠질 우려가 있다¹⁰⁾고 비판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를 어느 하나만 꼬집어 댈 때 그것이 상호주관성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5) 김정자, 「'불'의 기법의 문체론적 해석」『인문논총』 제29집(부산대학교, 1986)

6) 김정자,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삼지원, 1985), 23쪽.

7) 김정자, 앞책, 22쪽.

8) 위 책, 31쪽.

9) B. 매튜는 그러한 의미에서 단편 소설을 short story라고 부르지 않고 Short-story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단순히 분량을 따진 단편소설이라는 개념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상규 옮김, 찰즈 E 메이, 『단편소설의 이론』(정음사, 1983), 89쪽.

10) 박광수역, 앞책, 32쪽.

세째, 바슐라르의 미학을 실제 작품 분석이나 창작에 적용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슐라르는 ‘불’을 말할 때,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노발리스 콤플렉스, 성화(性火)된 불, 펀치-호프만 콤플렉스 따위로 설명하고 있다.¹¹⁾ 이것을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할 때 거꾸로 소설가나 시인 또는 문학연구가에게 작품의 의미를 한정짓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바슐라르의 상상력 자체가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서양 문학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바슐라르의 미학을 동양 또는 우리나라 문학에 적용할 때 문학이 가지는 문화적 개별성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양 설화 속에서의 드래곤과 동양 설화속에서의 용(龍)이 갖는 내포는 각각 다르다. 획일화의 우려는 있으나, 서양의 드래곤이 악룡(惡龍)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반면에 동양의 용은 선한 용으로서 그 의미가 인식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¹²⁾

II. 본 론

1. 몽상적 상상력-불

인간은 상상력을 갖고 있고 그 상상력은 인간을 원숭이의 일족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시켜 왔다. 상상력 가운데 인간을 가장 인간이게 한 것은 ‘불’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된다. 인간에게 불을 가르쳐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시대, 영웅시대를 거쳐 인간시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카우카소스 산상에서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고 있는가? 그렇다.

불, 그 곁에서 인간은 꿈을 꾸어왔다. 이렇게 꿈을 꾸어온 결과는 오늘날

11) 민희식역, 앞책, 1~164쪽. 이에 근거한 논문으로 김정자, 앞논문 참고 요망.

12) 이 경우 미리(龍)을 동양적인 복종정신을 나타내고 드래곤을 서양의 반항정신으로 나타낸 신채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임형택·최원식편, 『한국근대문학사론』(한길사, 1986), 321쪽.

우리가 보는 문명이요, 예술이요, 문학이다. 불은 인간의 현실에서, 문학작품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동굴속에서 불을 지피던 원시인은 빙하가 끝날 날이 멀지 않음을 알았다. 믿음을 지키다 화형을 당한 믿음의 신자들, 구국의 소녀 잔 다크의 죽음, 그리고 전쟁의 불꽃속에서 산화된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도 있으며 아까운 젊음을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불살라버리는 희생도 있다. 문학작품속에서는 신상을 불태운 죄로 올리시즈는 공항에 돌아가기 위해 끝없는 바다위에서 방황을 해야 했고 오셀로의 질투의 불길은 자신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맥베드의 권력에 대한 탐욕의 불길은 마법사의 허황된 예언마저도 진실로 믿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불에 대한 인간의 '꿈'에서 비롯한다. 소설은 상상력의 형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설 작품을 이렇게 보는 관점 또한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불이 갖는 이러한 몽상적 상상력을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노발리스 콤플렉스, 성화(性火)된 불, 편치-호프만 콤플렉스 따위¹³⁾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이 갖는 기본적 속성은 연소성, 가변성, 소멸성이다. 이러한 불의 속성을 이용하여 인간은 농업문명사회에서 산업문명사회로 넘어 올 수 있었다.

농업문명사회에서의 '불'은 인간이 자연과 동화가 되어 있음을 뜻한 반면, 산업사회의 '불'은 인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소외시켜 왔다. 그 불은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이기도 하며 산업화의 불길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불'은 산업문명사회에서 다음 단계의 문명으로 가기 위해 새로이 불타오르려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사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보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인간들이라고나 할까?.

산업문명사회의 마지막 불길을 보면서 변방(邊方), 그 역사의 왜곡지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시공간(時空間)속의 삶이 소설속에서 산업사회로의 '불'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른바 개화기 이후 일본 강점기, 그리고 분단기의 오늘에 이르는 시기의 문제의 본질을

13) 민희석역, G.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초의 불꽃」, 『세계사상전집』 10(삼성출판사, 1979), 1-164쪽.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젊은이들의 분신자살사건들 또한 그러한 문제의 표면화라고 볼 수 있는 점도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이 글에서는 주로 해방이후부터 시작하여 70년대초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우리 사회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몇몇 소설 작품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야 말로 과거—개화기, 일본강점기—의 모든 문제가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분단기의 문제까지 얹혀 있는, 소설속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인 산업사회화로의 불길이 타오름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과 혼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세계사가 산업문명화로 가고 있는 시기에 이 땅에서는 이 기간동안 ‘불’을 보고 무엇을 꿈꿔왔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시대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소설 속의 불

2.1 일상의 삶—홀로 사라져 가는 부성에: 『독짓는 늙은이』¹⁴⁾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모르는 방황하는 늙이 된다.… 영혼이 이 유한한 세계에서 안주하려 하는 저 공동체의 상징으로는 실로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¹⁵⁾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무엇인가? 평생을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소설이라는 갈래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물음이다. 젊어서야 넘치는 의욕으로 여러 여자를 접할 수도 있고 또 여자 때문에 절망속에서 방황하기도 한다. 아니면 여자의 격려로 칠전팔기의 의욕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늙어서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통 노인네들의 삶이다.

『독짓는 늙은이』에서 우리는 병든 남편과 어린 아들을 봐두고 남편의 조수와 함께 달아난 아내를 보며 또한 버림받은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병든

14)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 『한국문학대전집』 10(태극출판사, 983), 412-418쪽. 이하 인용하는 모든 페이지는 각각 해당 소설의 페이지다.

15) 윤지관역, W. 후엔 지음, 『도스토예프스키, 키에르케고르, 니체, 카프카』(까치, 1985), 35쪽.

노인의 부성애를 본다.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장손(長孫)을 어디 좋은 자리에 주어버리자고 해도 도망간 조수와 아내에 대한 적개심과 아직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자존심이 얽힌 고집으로 인해 노인은 거절을 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조수가 만들어놓은 가마속의 독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심정에는 생활의 곤핍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조수에 대한 분노의 불길(질투의 감정이다)은 정신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할 독다듬기를 떨리는 손길로 하게 만든다(413쪽). 조수보다는 좀더 나은 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떨리고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무력함과 고립이다. 무력함은 노인에게 도피의 메카니즘¹⁶⁾을 갖게 하지만 당장의 배고픈 삶의 여건은 노인으로 하여금 독을 짓게 하고 한가마가 되기도 전에 밖에 내놓게 한다. 가마속에 독들을 넣고 불을 넣는다. 가마속에는 조수가 빚어 놓은 독들도 같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만든 독들이 조수가 만든 독들보다는 낫기를 바란다. 그러나 조수의 독들이 멀쩡하게 구어지는데 비하여 조수에 대하여 질 수 없다는 질투의 불길로 만든 노인의 독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어지고 만다. 이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하여도 아내는 도망갔으며, 자신에게는 아내를 되돌아오게 할만한 젊음이 없고 따라서 생존 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불길속에 깨어진 독들은 노인의 꿈이며 자존심이고 고집이었던 것이다. 노인은 자신이 공허감과 고독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앵두나뭇집 할머니에게 자신은 죽었다고 장손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장손을 애가 필요한 집에 맡기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길이 이는, 자신이 만든 독들이 깨어져 있으나 햇빛이 들어오는 가마속—그것은 노인의 일생이었고 꿈이었었다—에 들어가 죽는다.

바슐라르는 '하루살이는 불꽃속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완벽하고도 흔적이 없는 죽음은 우리가 누구나 피난을 향해서 떠난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¹⁷⁾' 고

16) 이규호역, E.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세계사상전집8, 삼성출판사, 1977). 34-35쪽.

17) 민회식역, G. 바슐라르, 앞책, 26쪽

하였거니와 어머니의 자궁과 형상이 비슷하였을 가마속에서 노인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평온한 죽음을 꿈꾸는 것이다.

2.2 영원한 진리의 불꽃 : 『바비도』¹⁸⁾

이 소설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드물게 외국이 배경이 되고 외국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서 주지적인 경향을 띤 작품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을 상징적 이미지로써 받아들인다면 언론이 통제를 받거나 진실이 왜곡되는 시대 또는 사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지식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 진실을 알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이상에의 헌신을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분단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 문제이기도 한다.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오로지 그 ‘하나’만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상황속에서 살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바비도』의 시공간적(時空間的) 배경은 천주교가 하나의 절대적 이념(도그마)으로써 마지막 단말마(斷末魔)의 판을 치던 중세말의 종교재판이다. 신은 재림하겠다고 이천년 전에 약속하였지만 신의 사도라고 하는 교회에 의해서 복음은 어느덧 왜곡되어 버렸다. 교회를 가리켜 ‘신을 조롱하고 있는’ 협잡꾼¹⁹⁾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시대다. 예로 북카치오의 데카메론에는 성당의 신부가 처녀를 후려 임신시키는 이야기, 유부녀와 놀아나는 이야기 따위가 풍부하다. 심지어는 현실적으로도 교황이 친누이동생과 놀아나서 임신을 시키고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귀족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귀족을 죽이고 그 아이를 교황청안에 끌어들여 자기 다음의 교황으로 세습 시키려고 한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신과 냉소의 집중공격으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교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로 이단 분형령(異端焚刑令)과 스미드피일드의 사형장을 이용하는 일뿐이었다(261쪽). 이때 바비도가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속의 사건은 바비도가 영어복음서 비밀독회에 참가한 일에서 비롯되나

18) 김성한, 『바비도』 『한국문학대전집』 11(태극출판사, 1983) 261-268쪽

19) 키에르케고르의 말, 윤지관역, 앞책, 181쪽 재인용

서술의 시발점은 바비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데에서부터 비롯하고 있다.

성경만이 진리요 그 밖의 모든 것은 성직자의 허구라고 열변을 토하던 경애하던 비밀독회의 지도자들도 종교재판정에서는 눈물로써 회개를 하는 마당에 일개 재봉직공 바비도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실제로 바비도는 '나같은 천한 몸이 양심을 안 속였다고 별 수 있을 것도 아닌데...되는대로 대답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262쪽)' 생각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아무리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여 보아야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 위로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사제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체에 대한 위압감과 그 조직체 때문에 자신은 형태도 없이 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공포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자리에서 보이는 등불과 그 불에 뛰어들어 죽은 하루살이를 보면서 바비도는 비로소

‘힘이다. 너희들이 갖는 것도 힘ियो, 내게 없는 것도 힘이다.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고 약한 것이 문제다. 힘은 진리를 창조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자기집 문지기개로 이용한다. 힘이여, 저주를 받아라(262-263쪽).

깨닫는다. 이 경우 등불의 불이 바슈라르의 ‘수직성적(垂直性的) 불’의 상상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수직성적 불의 상상력은 하나의 완결된 삶, 높은 이상을 통하여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태우려는 것²⁰⁾인데 대하여 등불을 통해 문제가 힘의 유무에 있다고 깨달은 바비도의 행동은 자신의 오두막집에 있는 무엇든지 보이는 대로 파괴하고 싶고 사람 허울을 쓴 놈이면 당장에 목을 비틀어서 쑥 잡아 빼버리고 싶은 마음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263쪽). 즉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조직에 의해 힘에 의해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자포자기이고, 절망감의 드러낸 것이다.

바비도는 종교재판정으로 넘겨지게 된다. 바비도는 회개를 요구하는 사제와의 문답끝에 사제로 하여금 ‘나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교회의 명령이 있을 뿐이요, 양심은 문제가 안된다(263쪽)’ 실토하게 만든다. 이 단계에서 바비도는 자신이 깨달았던 것이 옳았음을 알게

20) 김정자, 「불의 기법의 문체론적해석」 『인문논총』 29집(부산대학교, 1986), 별쇄, 6쪽.

된다. 그는 사제에게 ‘산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당신같이 썩은 사람은 살아있지도 않고 살 가망도 없습니다. 산 상장이죠, 구데기가 이물이물하는(263쪽)’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폐업하고 인간사를 뛰어넘는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 자포자기와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화형장은 대립된 상상력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존재한다. 바비도의 상상력과 바비도가 화형되는 것을 보려는 군중들의 상상력이다. 바비도의 죽음을 보려는 군중들 속에는 바비도처럼 성서비밀독서회에 참석했다가 생명의 위협에 굴복하고 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진리따위에는 무관심한 채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무지(無知)의 군중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바비도에 대해 불을 지르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악성(惡性)의 공격인 잔인성과 파괴성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 몽상력도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살아 있는 조직을 찢어버리자는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죽은 자에 대한 사랑)²¹⁾의 불이었다. 그것은 또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군중들의 적개심에 의해 불살리여지지만 바비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길은 이상의 완성을 위한, 스스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통과의례적인 불길이었다. 그것은 수직성적 성격의 불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형되면서 바비도는 비로소 하루살이 운명에서 벗어나 완성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불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2.3 이타심(利他心)과 이기심(利己心)의 어긋나기 : 『등신불(等身佛)』²²⁾

소설 『등신불』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소설이 액자소설²³⁾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액자소설이 갖는 기능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자가 내부이야기를 위한 기연(機緣)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외부액자의

21) 유기성역, E. 프롬, 『파괴란 무엇인가?』(홍성사, 1979), 413-435쪽

22) 김동리, 「등신불(等身佛)」『한국문학대전집』 9(태극출판사, 1983), 506-509쪽

23) 액자소설의 소설속에서의 기능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고

김중하, 『현대소설분석노트』(세종출판사, 1990), 31-36쪽

화자와 내부 액자의 화자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핵심이 되는 소설내용만 갖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신불』에서는 외부액자인 나와 내부액자의 인물사이에 '불'을 중심으로 연결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외부액자나 내부액자나 같은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게 된다. 즉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부액자속에 있는 '파'의 상상력과 내부액자속의 '불'의 상상력을 서로 관련시키는 문제이다. 일본강점기에 살던 주인공이 불문(佛門)에 은신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쓴 것과 내부액자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부처님께 바치는 소신 공양을 한 사실 사이의 연결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등신불』의 짜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공간적 배경과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강점기에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간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속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등신불에 대하여 화자가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화자 자신이 역사적 상황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던가를 고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쟁의 불길울 피하기 위하여 병영을 탈출하여서 은신지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공간 이동이기도 하며 통과 의례²⁴⁾를 뜻한다. 새로운 '불'인 정신적인 성숙²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소설 『등신불』에서 이러한 공간이동은 일본의 직접적 지배를 받고 있던 반도에서 중국 북경을 거쳐 남경과 그곳의 서공암(棲空庵)에 가는 길, 서공암에서 정원사(淨願寺)에 가는 길, 정원사의 원혜대사의 청정실(淸淨室) 옆방에서의 생활, 끝으로 문제의 금불각을 보게 되는 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서공암, 정원사, 청정실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이 현실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떠나 화자의 심리속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1) 생존 본능(이기심)의 드러남-반도에서 서공암까지; 화자가 살고 있던 이때는 역사적 상황앞에서 움직여야 할 때로 선택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24) 김용희, 『현대소설속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정음사, 1985), 4-5쪽

25) 김용희, 같은 책, 3쪽

선택은 당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했듯, 맹목적으로 끌려나가 무의미하게 개죽음하는 길, 또는 탈출하여 중국의 오지 충칭(重慶)에 가서 독립군이 되거나 팔로군이 되는 길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소설속의 ‘나’는 나하나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고른다. 나는 내일이면 남경을 떠난다는 날, 탈출을 감행한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생존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이기심의 발로이다. 처음 반도를 떠나올 때부터 탈출의 계획은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당시의 의무-독립투쟁-를 수행할 뜻은 없었고 서공암의 진기수도 탈출로의 필요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문(軍門)을 탈출한 나는 진기수를 찾아가 ‘願免殺生 歸依佛恩(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며 부처님의 은혜속에 귀의하고자 하나이다(507쪽)’라는 문구를 손가락을 깨물어 나오는 피로 쓴다. 이것은 불문에 들어가기 위한 상징적 죽음(symbolic death)의 통과 의례²⁶⁾를 거치는 셈이 된다. 또 ‘피’는 생명을 뜻하므로 뒤에 ‘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나의 불문으로의 입문이 나만의 생존을 위한 이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만을 중요시한 것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정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내면으로의 길-서공암에서 정원사까지; 서공암에서 정원사까지 가는 길은 달빛 하나 없는 험악한 산길이었다. 그 길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길이기도 하며, 작중 화자인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험악한 산길은 ‘나’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불교에서의 귀의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나’는 오로지 길의 험악함에 질려 있다가 초생달이 보인 자정이후에 길이 편하여졌음을 기뻐하고 있을 따름이다.

(3) 미망(迷妄)을 못 벗어남-정원사의 청정실에서; 나는 정원사에 도착하여 청정실에 머무르게 된다. 이 경우 정원사의 ‘정원(淨願)’과 청정실의 ‘청정(淸淨)’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다 깨끗하게 한다는

26) 김용희, 앞책, 122쪽

27) 김종하, 앞책 124쪽에 따르면 만적선사와 나사이에선 동기의 차이가 있지 단지(斷指)와 소산공양의 질적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뜻으로 속세에서의 먼지를 깨끗이 한다는 뜻도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절에 올 때의 불순한 뜻—자신의 목숨만을 살리겠다는—을 깨끗이 하라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청정실 주위를 아침마다 깨끗이 한다. 식량준비를 도운다, 중국어도 배운다 하는 일로만 소일을 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다. 불문에 온 것이 진정코 자기가 살생을 피하겠다는 자비심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리겠다는 욕구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한다. 미망을 못 벗어난 것이다. 여기서 금불각이 등장하게 된다.

(4) 내면의식과의 어긋남—금불각에서 ; 중국의 법당을 일본이나 고국의 법당들과 비교하며 체력이 큰 것이 중국인의 눈에는 보다 거룩한 법력(法力)으로 느껴졌을지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던 나는 금불각을 보고서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다. 그러면서도 좀 돈많은 부자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굳게 닫힌 금불각의 문은 나의 굳게 닫힌 양심을 드러낸다. 그러다가 청운 스님이 금불각의 문을 열어 안에 들어 있는 불상을 보였을 때 나는 미묘한 충격에 부딪친다. 불상의 모양이

불상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는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의 결과부과상이었다.—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확 움켜잡는 듯한(512쪽)

였기 때문이다. 이 순간은 '나'의 엠퍼시(empathy)의 순간이자 자각의 순간이었다. 자신의 내면 세계의 고통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에 끝나고 만다. 며칠 후 다시 보았을 때는 그전날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전율에 휩쓸리지는 않은 채 슬픔이랄까 아픔같은 것으로 메꾸어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상(感傷)과 같은 성격인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식과 끝까지 대결하여 볼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원혜대사의 도움으로 만적전사 소신성불기(萬寂禪師燒身成佛記)를 읽고 원혜대사로부터 기록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기서 '불'의 몽상적 상상력이 등장하게 된다.

원혜대사의 이야기, 곧 내부액자속의 주인공 만적이 소신공양을 하게 된 것은 두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을 불문에 넣어준 취피 스님이 열반하게 되자 자신의 몸을 불전(佛殿)에 헌신하려고 했던 것, 둘째, 십년만에 만난, 우애깊었던 이복동생이 문둥병환자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뉘우침, 이 둘이 얹혀져 소신공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불문 입문 동기와는 달리 이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타심은 곧 소신공양이 있는 날 많은 신이(神異)가 있게 했고 오늘날까지에도 아이를 낳는 데나 병을 고치는 데 영험이 있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외부액자속의 ‘나’와 내부액자속의 만적의 죽음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틈’이 벌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즉, ‘피’도 생명을 뜻하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나’의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만적의 그것은 대승불교적인, 이타적인 것이다. 만적을 사른 ‘불’은 이상을 위해 몸을 사른 수직성적 성격과 사회를 정화하려는 성격²⁷⁾ 두가지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 점을 내부액자를 외부액자의 화자인 나에게 매개시켜주는 매개자인 원혜대사가 피를 보였던 나의 손가락을 들어보이게 함으로써 ‘나’에게 깨우쳐주려 하였던 것인데 나 자신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리어도 좋다는 겐지 일체 뒷맛이없는 것이다(519쪽).

나는 여전히 나의 이기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를 받아들이는 중국이나 한국에 있어서 불법의 진리는 교외별전(郊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에 따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내부화자와 외부화자의 이러한 주제의 차이를 작가의식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식민지하 문학인들의 변질 문제까지 다루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글의 관심밖으로 벗어나는 문제이다.

2.4 증오의 불길을 벗어나서—불꽃²⁸⁾;

28) 선우휘, 「불꽃」『한국문학대전집』 11(태극출판사, 1983), 336-377쪽

우연히 뿌려진 정충(精蟲)들 가운데 살아남은 한 마리가 곧 그 생명의 시작인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그 탄생이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인간의 갈등은 이미 원초적인 것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20 세기에 이땅에 태어난 세대들 만큼 시대적 역사적 상황의 질곡속에 움직여야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이에 따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기라는 과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무익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선우휘의 소설 『불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삶을 출발하는 첫 과정이 가족이라는 데서 가족관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민족은 유달리 ‘집’과 살붙이의식(가족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다.²⁹⁾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우선된다. 그것은 부모의 본보기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가 하는 문제로서 식민지시대와 분단기를 잇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는 갈등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꽃』은 주목된다.

소설은 주인공 고현(高現)이 세세세엘(CCCP) 소련제 총을 들고 31년전 아버지가 죽은 동굴을 찾아드는 데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동굴로 찾아드는 현실, 동굴속에서 지나온 과거를 되짚는 동안의 과거—현의 성장과정, 일본유학을 포함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와 해방직후의 고향사정—,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실, 세부분이다.

(1) 할아버지의 증오—동굴속의 회상; 동굴은 통과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상상력 가운데 하나다. 고현의 운명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기미독립만세때 왜경의 총에 맞아, 현이 찾아든 지금의 동굴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현의 할아버지는 왜놈들에게 당할 후일이 두려워 죽은 현의 아버지의 시체도 모른 채 하였다. 현의 어머니를 못 믿겠다며 새로 부인을 맞아들이고 며느리인 현의 어머니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 현의 할아버지의 이러한 자세는 생존을 위해 가족을

29)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 공저, 『가족관계학』(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68 쪽

부인하고 ‘집’을 계승하고자 했던 자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때문에 자
자손손 이어나가야 할 ‘집’의 의미가 현에게 계승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할아버지 대신에 현의 어머니는 현에게 남겨진 농토를 가꾸며 교회에 나가나
이마저도 할아버지가 반대한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생존을 위해서는 자식의
시체마저도 외면하였으나, 자신의 뒷날을 위해서는 후대에 제사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불이 의식이전에 ‘집’과 제사를
할아버지는 우선 순위로 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가끔 집에 들려 용돈을 주고 가는 할아버지로 해서 어린 시절의
현의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으나, 할아버지에 대한
현의 감정은 할아버지의 혹을 놀리는 동네아이들과 싸운 일에 대하여 할아
버지가 칭찬은 커녕 분노함으로써 바뀌게 된다. 그의 아버지에게 대하여 계
속적으로 비난하는 할아버지의 태도도 결국 주위 환경에 대하여 현이 무관
심하거나 소극적이게 만든다. 현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어른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의 가치 준거는 그의 ‘어머니’에게 있게
된다. 어머니의 허벅지에 나있는 풀고 붉은 줄—성화(性火)의 ‘불’을 누른
금기의 흔적이다—은 무의식중에 현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말없이 순종하고 농사짓는 일—인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의 처지는 일본강점기이후 분단기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역사의 혼돈 사
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젊은이들의 초상화이기도 하다.

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삼촌 때문에 현은 원하지 않
았던 일본 유학을 하게 되고 군에 입대하게 된다. 즉, 현은 군에 입대하기
싫어 외조부 집에 피신하여 있었으나 둘째 삼촌 영철의 신상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한 할아버지가 현을 고발한 것이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 현의 아
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자신의 집을 지키겠다는 욕구와 함께 현의 할아버지를
끝끝내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현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일은 현의 나이와 남편이 죽을 때의 나이가 같다는 데서 오는 어떤
불길(아마도 업보였을)을 느끼고 불안케 하는 빌미가 된다.

(2) 현실상황에서의 도피: 현은 군문에서 ‘구타, 학대, 오만, 비굴, 허위의
범벅, 군대란 인간이 있을 데가 못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털끝만한 명분이

없다(355쪽)' 생각한 나머지 탈출을 감행한다. 그는 세계에서 탈출하여 또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는 탈출한 후 며칠째 해매이다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한 소녀를 보고 욕정-성화의 불을 느끼나 대점으로 허벅지를 찢어 불길을 이겨 낸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현은 어머니의 허벅지의 상처의 뜻을 알게 된다. 현이 '피'를 흘린 일은 이방인이 지켜야 할 금기를 지킨 것이고 통과 의례를 거친 셈이 된다. 이 경우 금기와 통과 의례는 소녀를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연안(延安)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뜻한다.

연안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떠했을까. 공산주의는 '정감록(鄭鑑錄)과 다름 없는 운명의 예언서, 다르다면 그것은 과학의 이름을 붙인 예언서라는 것(367쪽)'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해방이란 방정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붙이고 이를 갖고 있는 이들은 말하자면 청탁업자가 없는 청부업자(357쪽)'로 현에게 보여진다. 따라서 현은 해방 한달 전에 연안을 탈출하여 해방 한달후 38선이 가까운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

고향에서 3·1절 기념식에 선열의 유족으로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의 눈에 반짝이는 눈물을 보고 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굴절했던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비로소 '가족'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혼담이야기를 현은 끝내 거절하고 만다. 그것은 현의 주위 사회환경 여건이 이념 논쟁이라는 분노의 불길-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이다-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은 자신의 혼담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자기의 미래에 한사람의 남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360쪽)'고 고백한다. 이것은 현이 현실에 대하여 자신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없음에는 상황에 인고(忍苦)하였던 그의 어머니의 허벅지의 불길의 각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은 다만 조용히 어머니와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몰두하려 한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그의 소극성은 교장이 자신의 비리(非理)를 감추기 위하여 바른말하는 교사들을 용공분자로 밀고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나섰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현의 소극성은,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중에 있는

월북했던 친구 영호와 맞부딪치게 됨으로써 도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영호는 자신을 청부업자로 보는 현에게 증오를 갖게 된 나머지 죽음으로의 불길만이 있는 인민재판정에서 현의 생각이 관념의 유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군중들 앞에서 사람을 죽음으로써 현이 공포를 갖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한 그의 의도는 어긋난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현은 ‘살인이다’ 외치고 총을 빼앗아 현장을 탈출한 것이다.

(3) 죽음, 그 영원한 불; 동굴속에서 이까지 회상을 했을 때 현은 비로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회생자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치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아픔이었다. 어찌하여? 나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중, 거기에는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371쪽).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이 현실에서의 도피의 생활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본 일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에 빠져든다. 이것은 현이 스스로 과거와 단절되고 있다는 암시다. 그리고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동굴속에 있으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자신을 사랑하는 여선생과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제 현이 ‘어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와의 관계였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두 삼촌의 안위(安危) 때문에 인민군에게 손자를 팔아넘긴 것이다. 할아버지가 인민군과 함께 동굴로 가까이 오는 일이었다. 이 순간, 현과 할아버지는 영원한 적대감의 순간위에 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손(祖孫)의 갈등은 할아버지가 조상들의 무덤이 보이는 언덕위에 서는 순간 깨어지고 만다. 조상의 무덤을 보고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 이대에 걸쳐 동굴속에서 죽는 운명이 되도록 무덤들을 이장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에게 도망하라고 고함을 치나 그의 등을 총알의 불길이 깨뚫는다. 할아버지의 등을 뚫는 이 순간의 불길은 회생을 통한 재생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할아버지의 일생이 모든 불합리에 알몸으로 항거하고 불합리에 대하여

불합리한 삶을 주장한 피어린 한 인간의 역사임을 깨닫는다. 이 순간에 그의 가슴을 깨고 티지는 '불꽃' - 다음 차원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376-377쪽)은 수직성적(垂直性的)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에게 있어서의 다음 차원이란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딪쳐 나가겠다는 자세다. 광기(狂氣)의 청부업자가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멀리서 다가오는 여교사 조선생과 함께 현은 '어른'이 된 것이다.

III. 결 론

불, 그 영원한 허무로의 의지

인간이 인간인 것은 '불'의 사용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진다. 이 경우 '불'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상력으로 존재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농업문명하에서나 산업문명하에서나 몽상적 상상력은 변함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편의 소설속에 나오는 '불'의 몽상적 상상력 또한 보편적인 상상력으로 다루어 볼 수 있다.

『독짓는 늑대』에서는 성화(性火)의 불길이 엠페도클레스적 의미로 전화(轉化)하였으나, 가마가 갖는 원형적 상징이 있음을 보았다. 『바비도』에서는 처음에 단순한 재봉사였던 바비도가 네크로필리아적 잔인성과 파괴성속에서 수직성의 불 또는 엠페도클레스적 불로 죽음을 이루게 되나 화형장의 군중들이 보는 불은 네크로필리아적 불의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은 예수를 못박고서도 파리새인의 말만 진리로 알 뿐이니까. 『등신불』에서는 '피'와 '불'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으면서도 외부액자인 내가 홀린 피와 내부액자속의 주인공 만적이 하는 소신 공양사이에는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만적을 사르는 불이 수직성적 불과 사회정화의 불이라면 내가 홀리는 피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외부액자와 내부액자를 연결시켜 주는 원혜대사가 깨우쳐 주려 했던 것인데 나는 깨닫지 못한다. 즉, 주제의식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꽃』에서는 어머니가

지키는 금기의 불꽃인 성화(性火)의 불이 주인공 현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을 보았지만 소설 전체적으로는 자기 각성의 '불'의 상상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다. 즉, 현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앞에서 카멜레온처럼 순응하고 살아간 할아버지로 하여 전통적인 '집'의 소속원이 못된다. 이 사실은 현이 일본강점기에서나 분단초기까지 현실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네크로필리아적 '불'이 들끓고 있는 인민재판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탈출한 후 아버지가 죽은 동굴에 이른다. 이때, 동굴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만들었던 원형적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굴속에서 현이 새롭게 태어나는 불꽃이 마련되는데 그것은 수직성적 성격의 불길이다. 아울러서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희생의 '불' 또한 현실에의 질은 참여를 뜻하는 수직성적 성격의 불이 된다.

'불'이 갖는 몽상적 상상력을 통한 한국인의 삶의 본질은 이제까지의 언급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 상승의 의미를 갖는다고 요약된다. 그러나, 농업 문명사회가 산업문명사회로 바뀌면서 더욱더 역사의 변두리에 놓이게 되어 역사의 질곡을 가장 많이 받게 된 한국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연소되고 있는 것일까? 분단 이후 경제개발에 의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직전의 시기는 과거의 축적이고 미래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었다. 이에 따라 네편의 작품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게 된다.

『독짓는 늙은이』와 『불꽃』속에 나오는 노인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농업문명사회의 이념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소설들에서 노인들은 산업문명화 되어 가는 소용돌이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소멸되어 가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하여 끝없이 변신하여야만 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가족의 계승이라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근본적 특징을 보여준다.

노인들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사라져가게 되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젊은 세대들은 또한 끝없이 방황하고 고뇌할 뿐이라는 걸 『불꽃』과 『바비도』와 『등신불』에서 볼 수 있었다. 노인들-윗세대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는 왜곡된 선동과 아집

만이 남게 된다. 왜곡된 선동과 아집만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못 깨달은 채 하기도 하며 아니면 집단에 의해 추방당하거나 자신의 고향인 동굴속에서 과거를 반추하는 삶을 젊은 세대는 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몽상적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불'의 상상력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불'의 상상력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바슐라르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불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콤플렉스>는 결국 비통한 콤플렉스이며 신경증이 되는 동시에 시가 되는 콤플렉스, 즉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콤플렉스인 것이다. 사람은 불의 활동속에서나 그 표지속에서나 불꽃속에서나 잿속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다.³⁰⁾

즉 인간이 갖는 꿈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이 끝난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서글픔이다. 영원한 허무로의 의지이다. 특히 이 핵무기의 시대에,

30) G. 바슐라르, 민회식역, 앞책, 102쪽